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CATI & ARS

제87차 CATI조사

제102차 ARS조사

# 여론조사꽃

## 정례여론조사

### 보고서

## CATI & ARS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26.2	42.8	23.4	7.7
	ARS	28.9	42.2	20.8	8.1
		진보	중도	보수	잘 모름

###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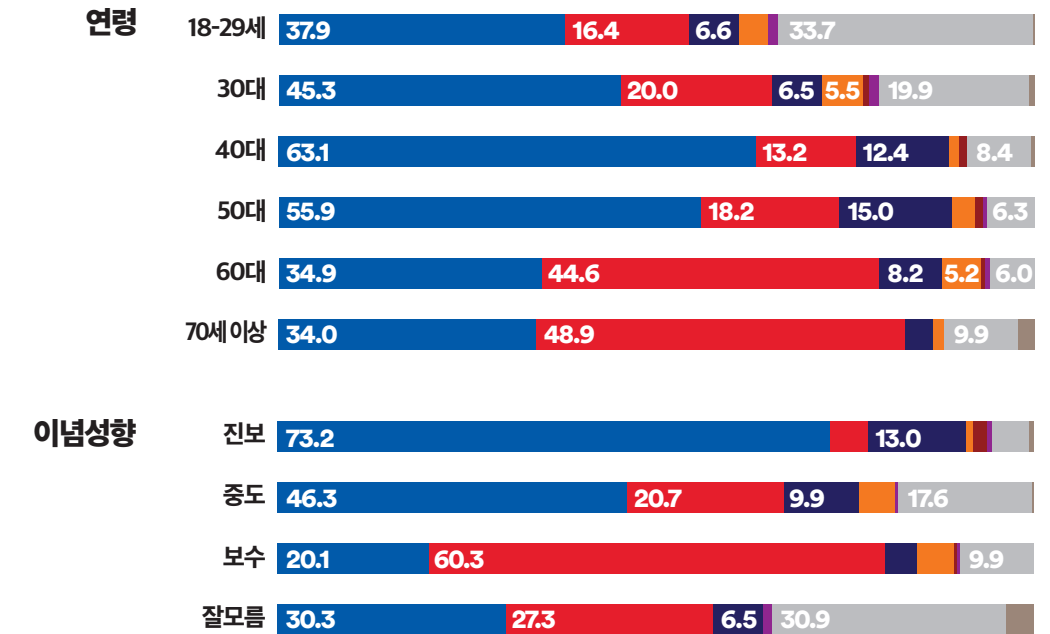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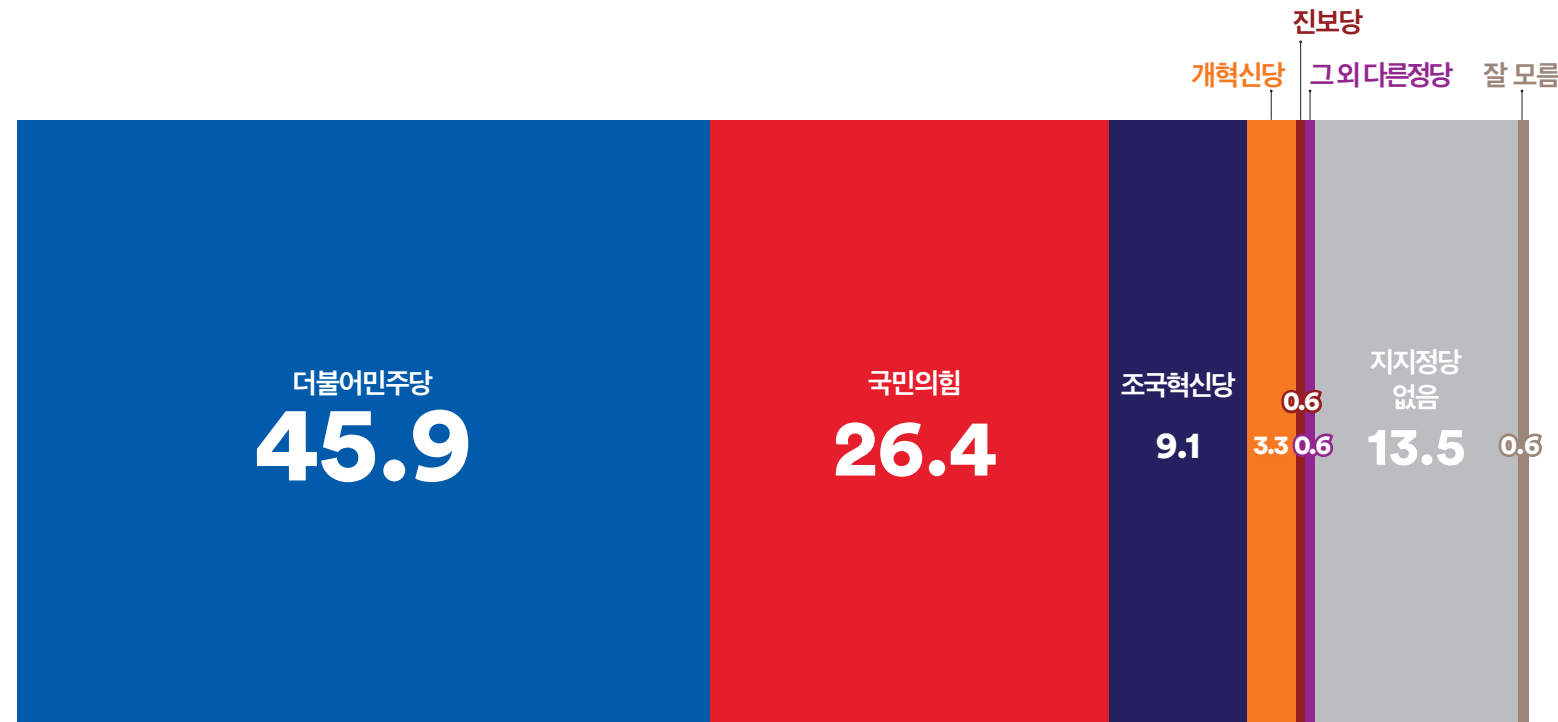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5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5	100.0	1005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499	49.7	496	49.4	0.99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6	50.3	509	50.6	1.00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18-29세	162	16.1	158	15.7	0.97		
응답률	12.0% [총 통화시도 8,393명]			30대	151	15.0	149	14.8	0.98		
조사기간	2024년 10월 18일 ~ 10월 19일(2일간)			40대	175	17.4	177	17.6	1.01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9	19.8	197	19.6	0.98		
				60대	174	17.3	176	17.5	1.01		
				70세 이상	144	14.3	148	14.7	1.02		
			지역	서울	190	18.9	188	18.7	0.98		
				인천·경기	320	31.8	322	32.0	1.00		
				대전·세종·충청	108	10.7	108	10.7	1.00		
				광주·전라	98	9.8	98	9.8	1.00		
				대구·경북	98	9.8	98	9.8	1.00		
				부산·울산·경남	149	14.8	149	14.8	1.00		
				강원·제주	42	4.2	42	4.2	1.00		

###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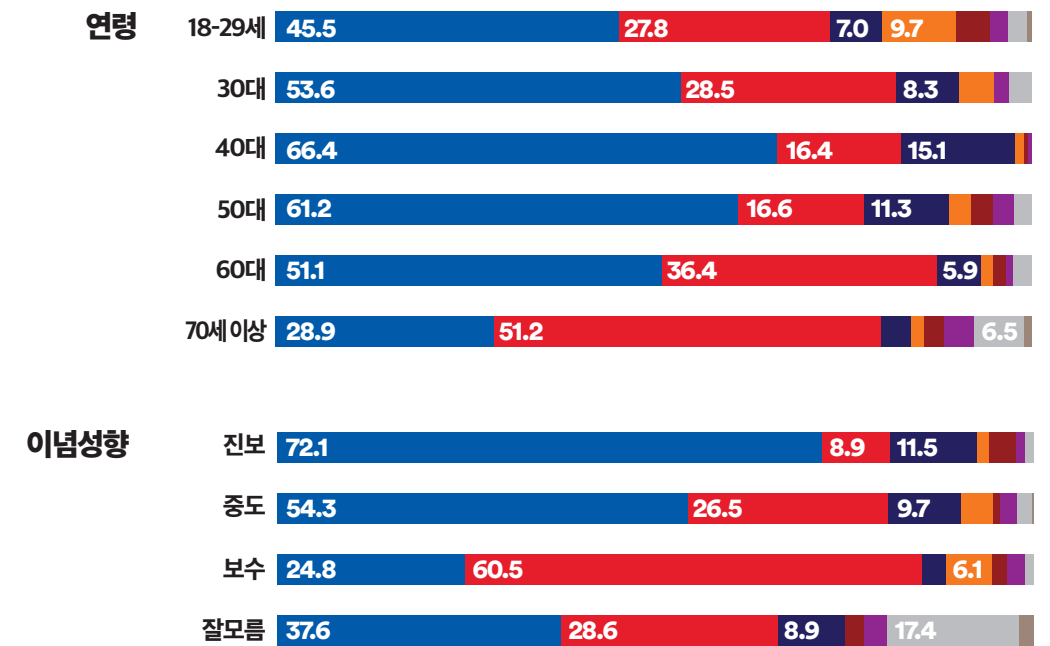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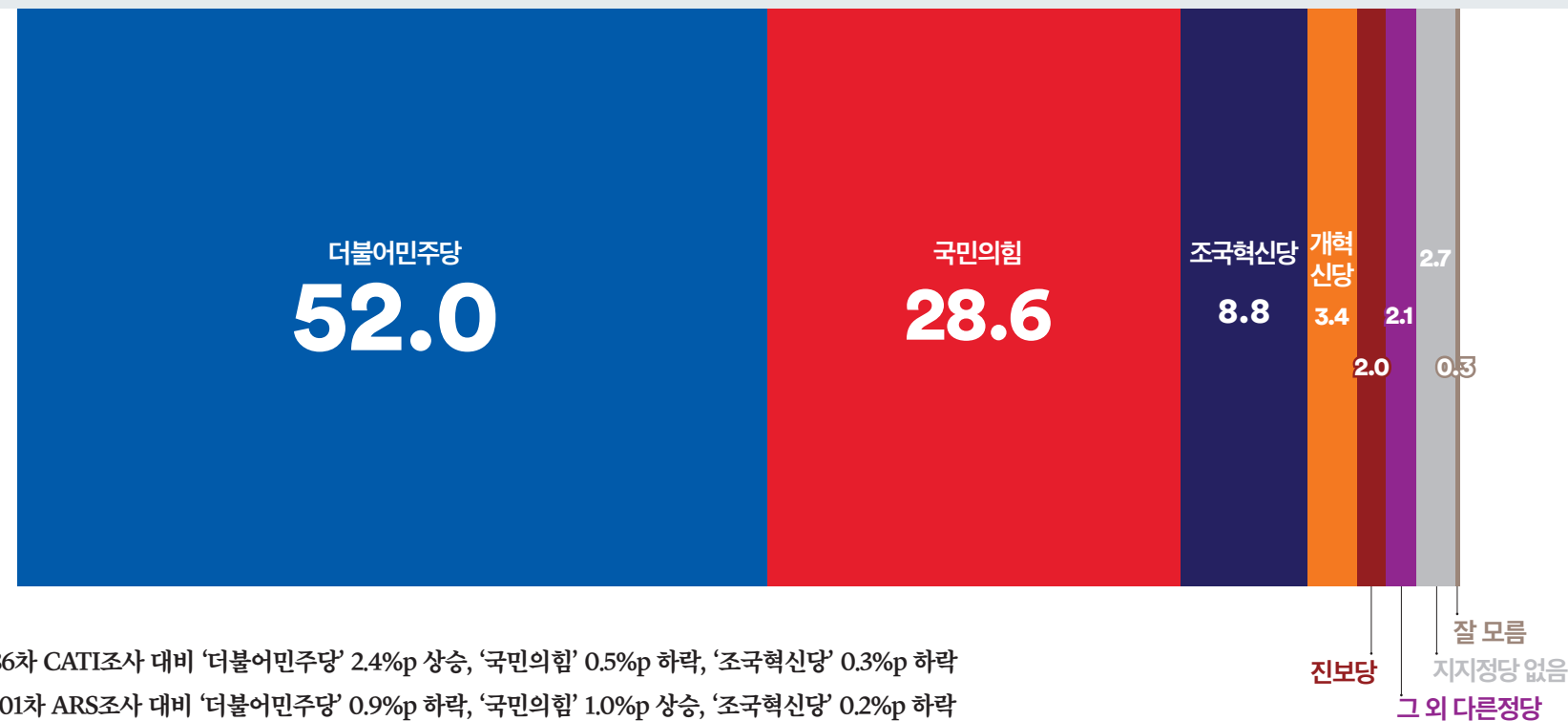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3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3	100.0	1003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19	51.7	496	49.5	0.95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84	48.3	507	50.5	1.04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18-29세	113	11.3	157	15.7	1.38		
응답률	2.3% [총 통화시도 44,284명]			30대	138	13.8	149	14.9	1.07		
조사기간	2024년 10월 18일 ~ 10월 19일(2일간)			40대	192	19.1	177	17.6	0.92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3	197	19.6	0.92		
				60대	191	19.0	175	17.4	0.91		
				70세 이상	155	15.5	148	14.8	0.95		
			지역	서울	193	19.2	187	18.6	0.96		
				인천·경기	314	31.3	322	32.1	1.02		
				대전·세종·충청	110	11.0	108	10.8	0.98		
				광주·전라	96	9.6	98	9.8	1.02		
				대구·경북	97	9.7	97	9.7	1.00		
				부산·울산·경남	148	14.8	149	14.9	1.00		
				강원·제주	45	4.5	42	4.2	0.93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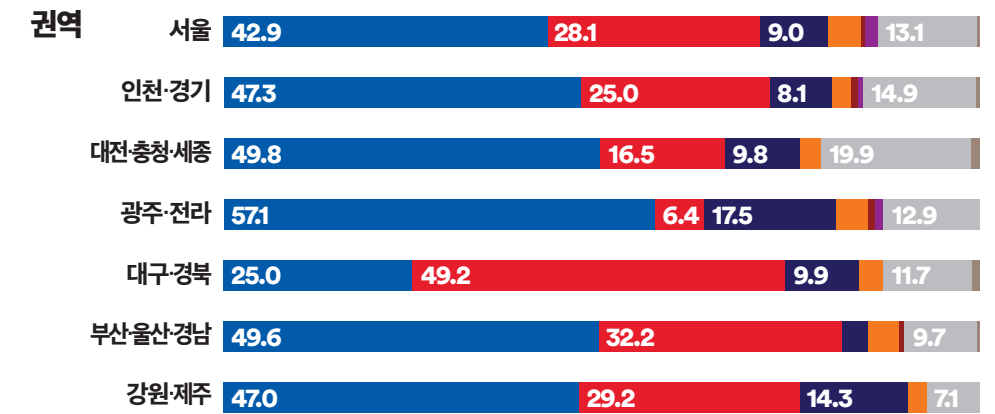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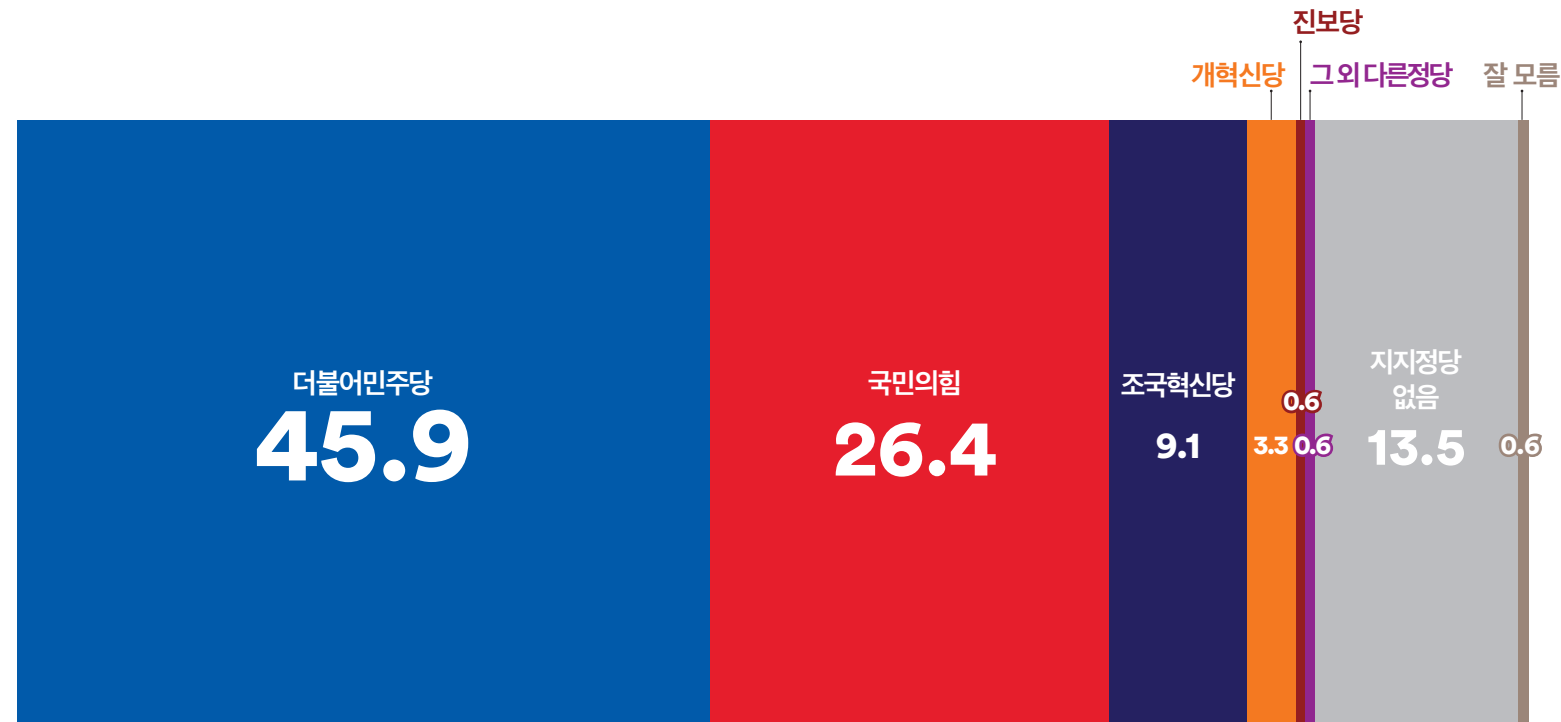


86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4%p 상승, '국민의힘' 0.5%p 하락, '조국혁신당' 0.3%p 하락  
 101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9%p 하락, '국민의힘' 1.0%p 상승, '조국혁신당' 0.2%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19.5%p, ARS 23.4%p(지난 조사: CATI 16.6%p, ARS 25.3%p)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28.6%p, ARS 32.2%p(지난 조사: 26.0%p, ARS 34.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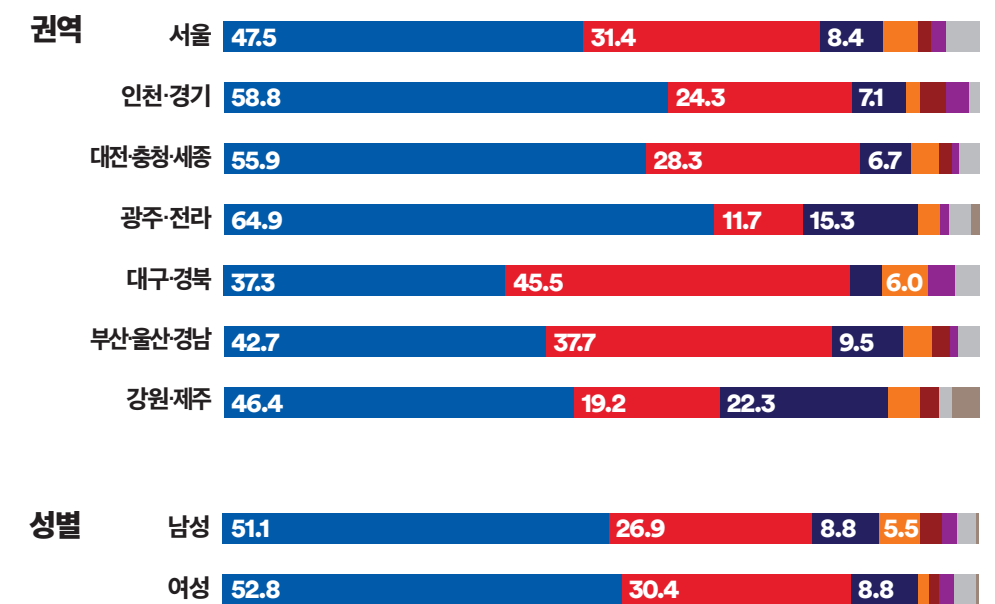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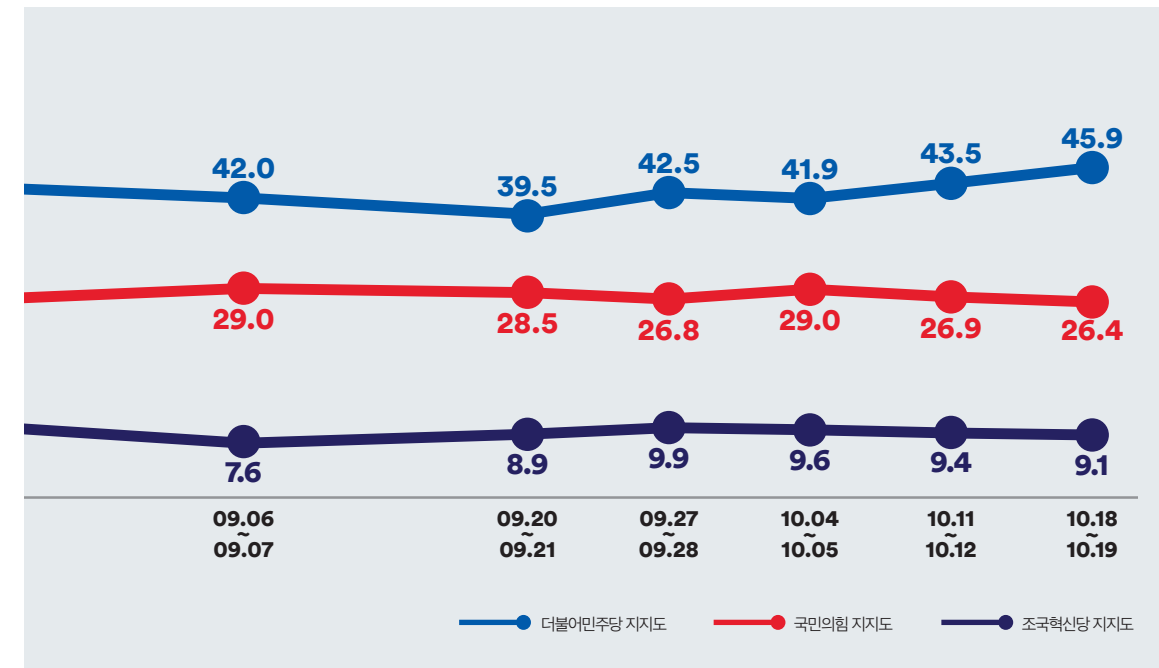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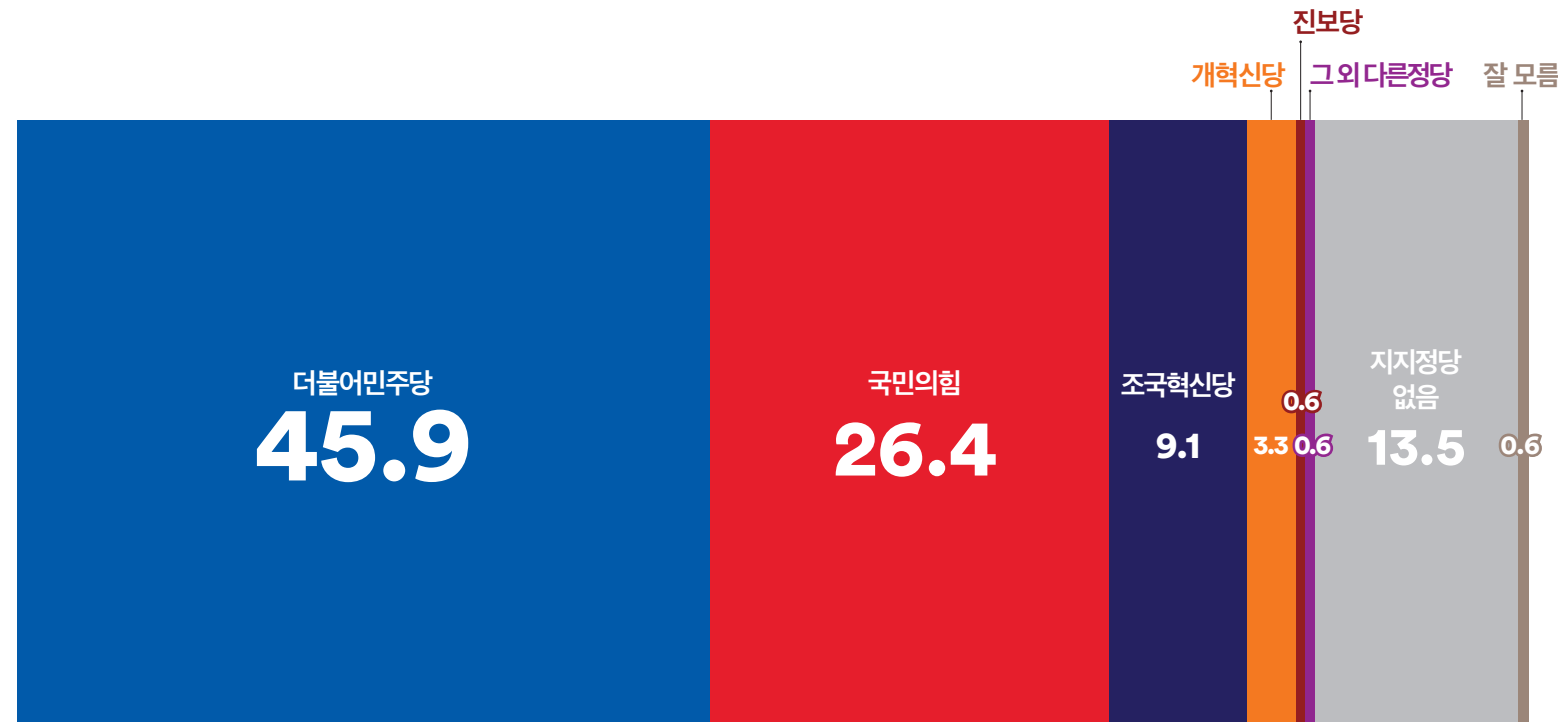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CATI조사에서는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60대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앞서거나 우세  
ARS조사에서는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CATI는 TK와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 ARS는 TK와 P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CATI는 TK를 제외한 전 지역, ARS는 TK와 P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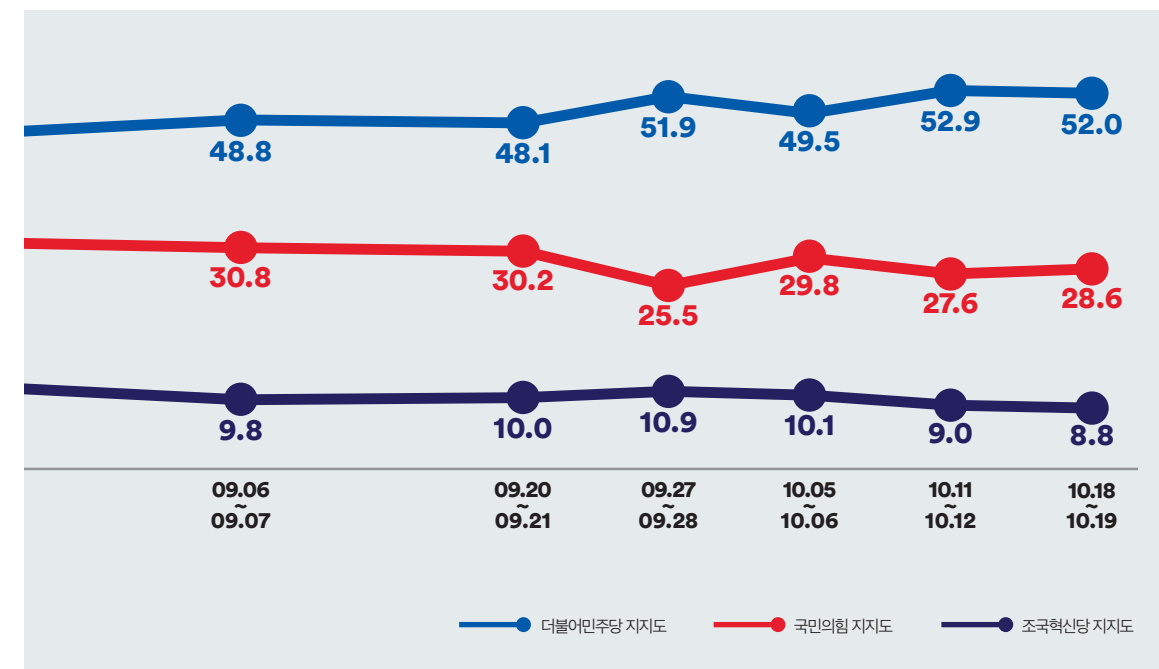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6.3%, '국민의힘' 20.7%, '조국혁신당' 9.9%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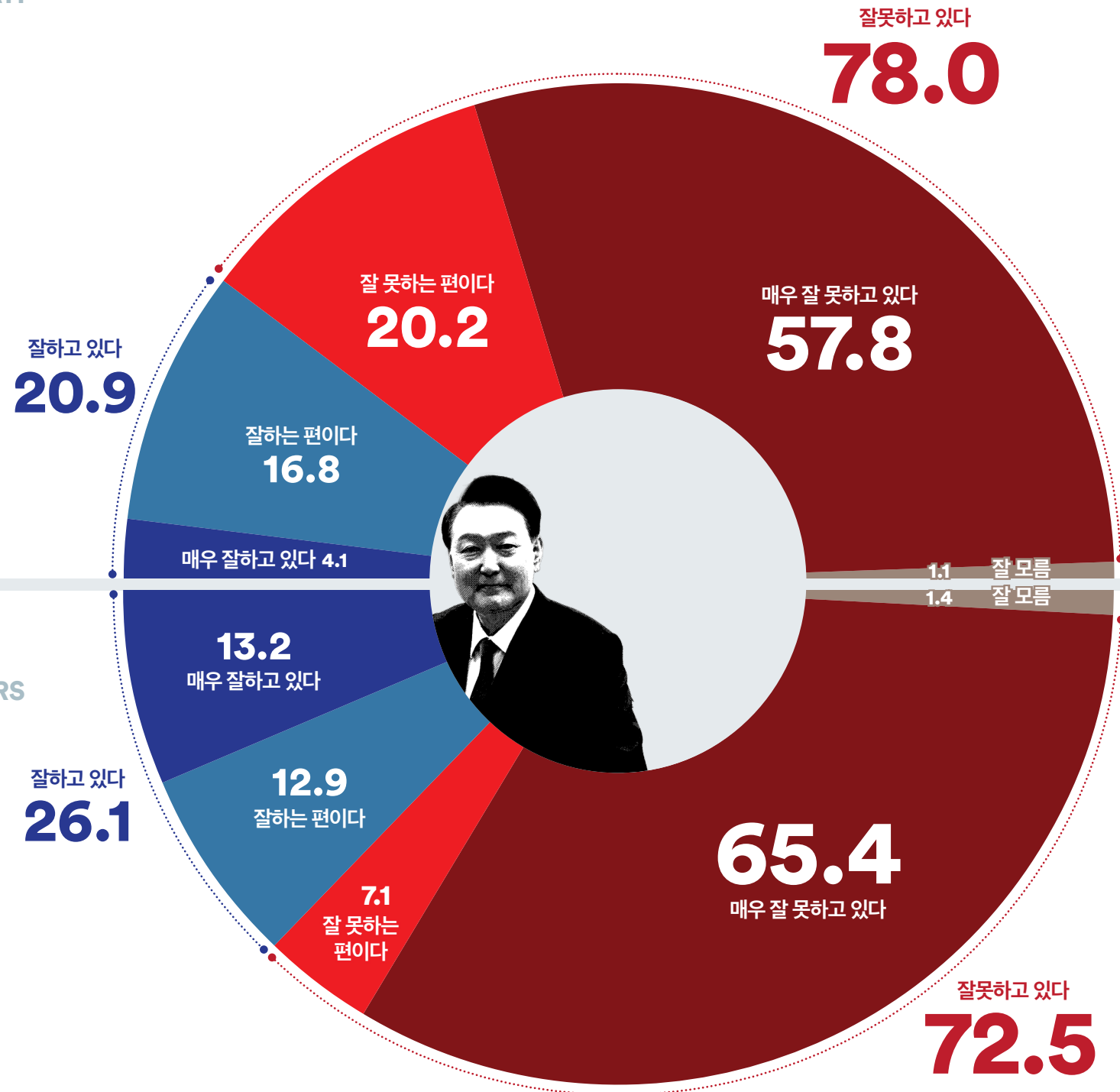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54.3%, '국민의힘' 26.5%, '조국혁신당' 9.7%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5.5%p(86차: 32.6%p), ARS 37.5%p(101차: 40.0%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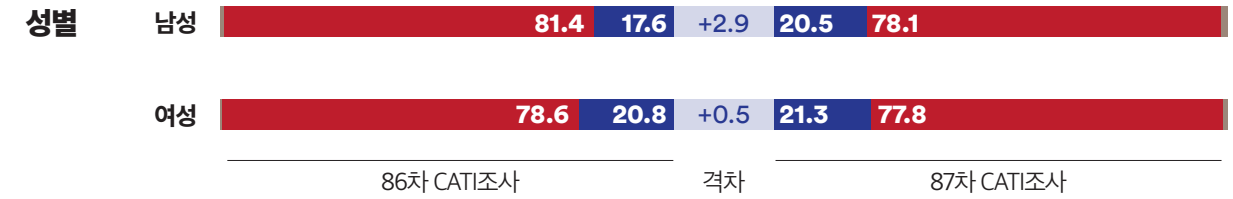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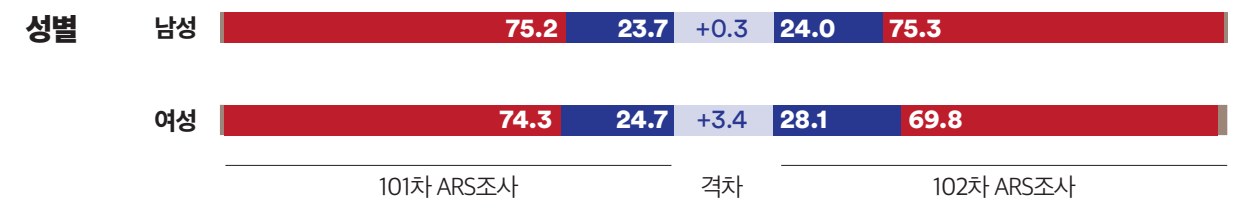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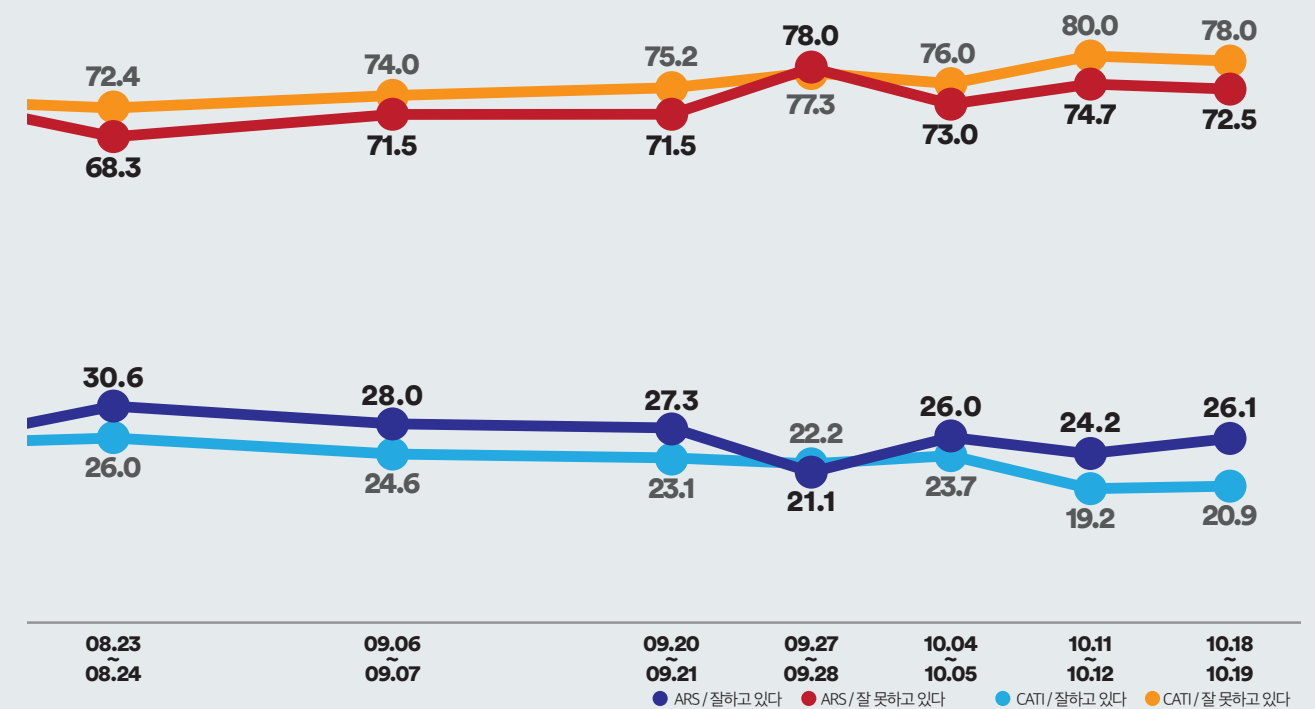
86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7%p 상승, '부정' 평가 2.0%p 하락(격차 57.1%p)

101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1.9%p 상승, '부정' 평가 2.2%p 하락(격차 46.4%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70세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 오차범위 내 앞서거나 박빙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71.5%p(지난 조사: 69.0%p), ARS 52.3%p(지난 조사: 55.0%p)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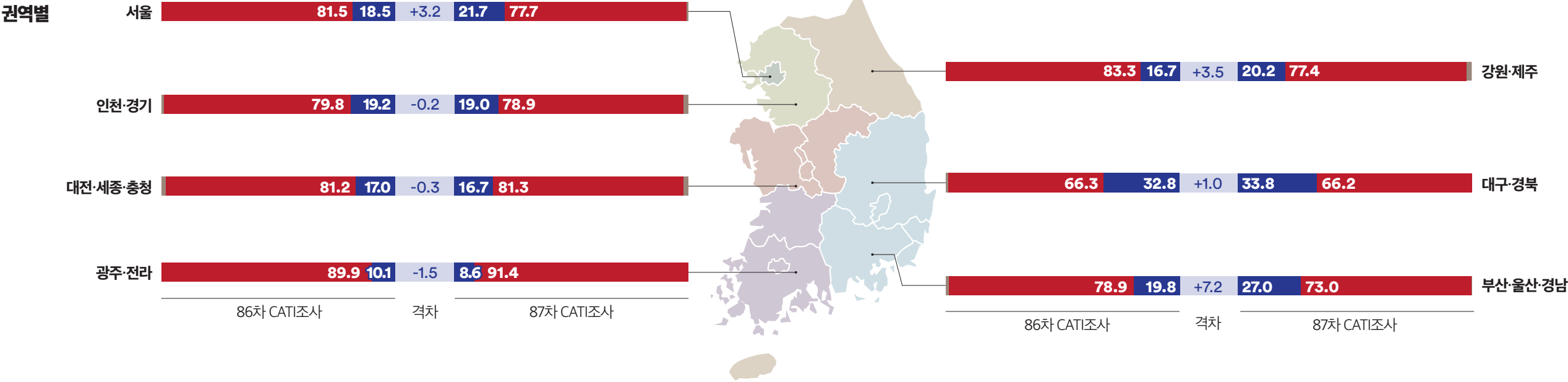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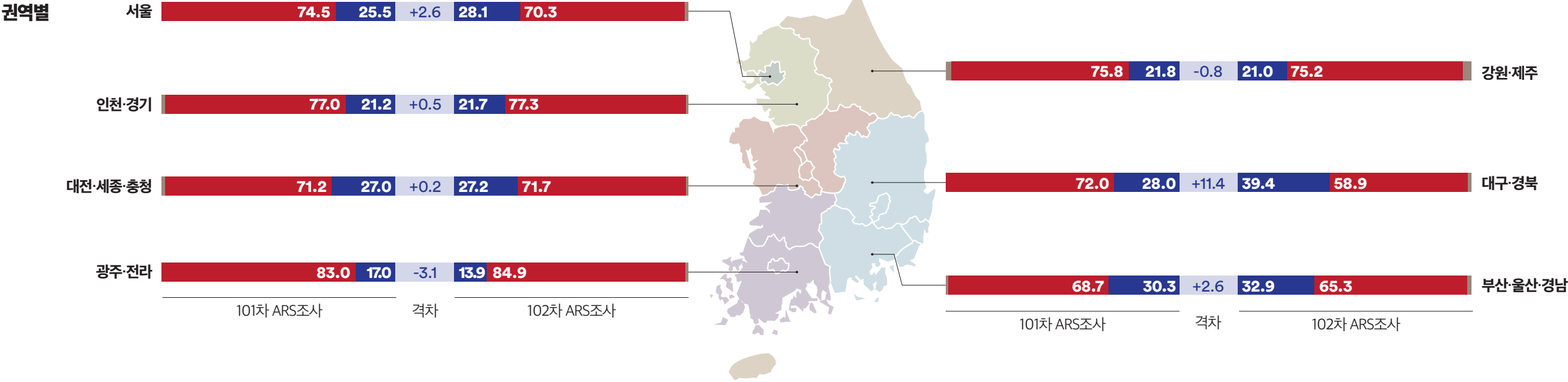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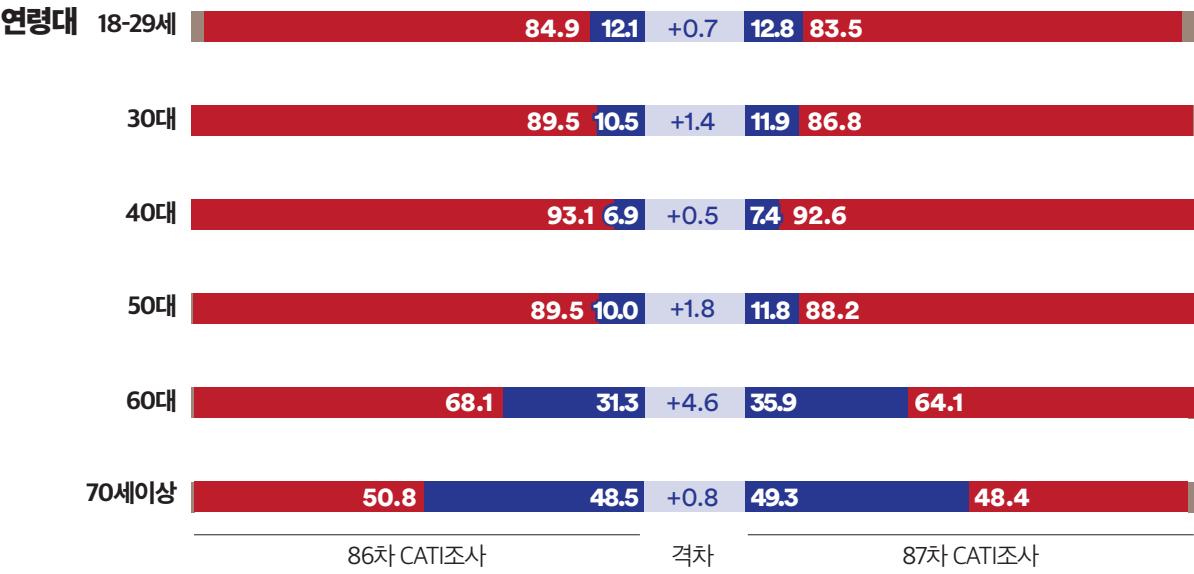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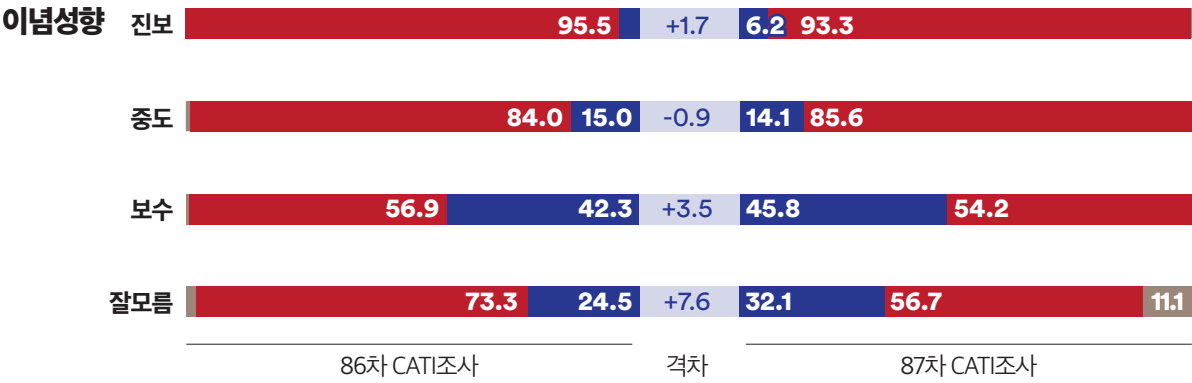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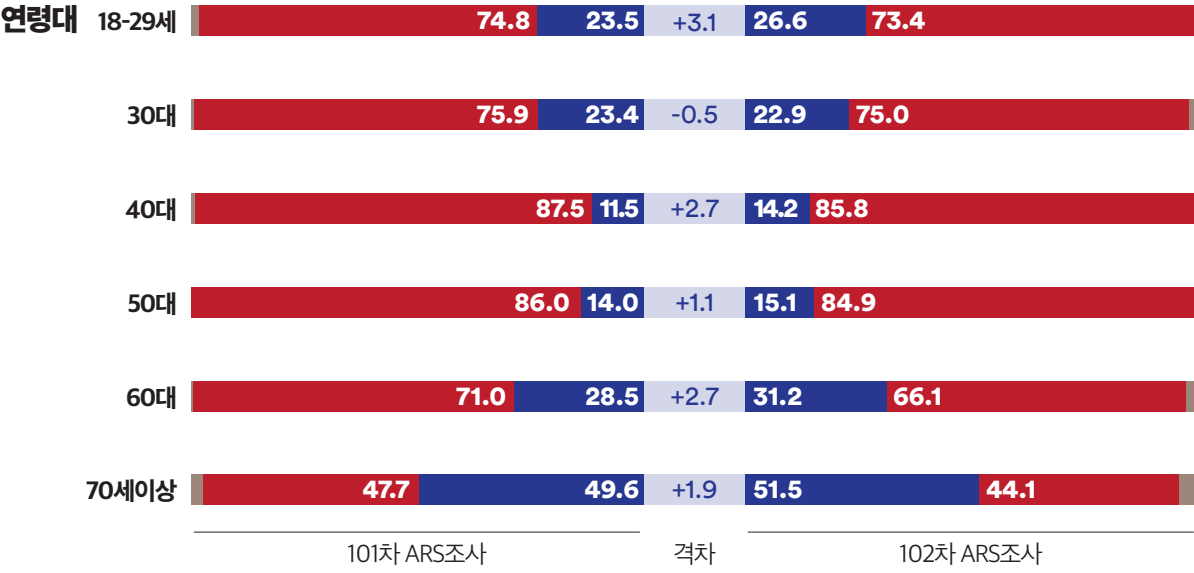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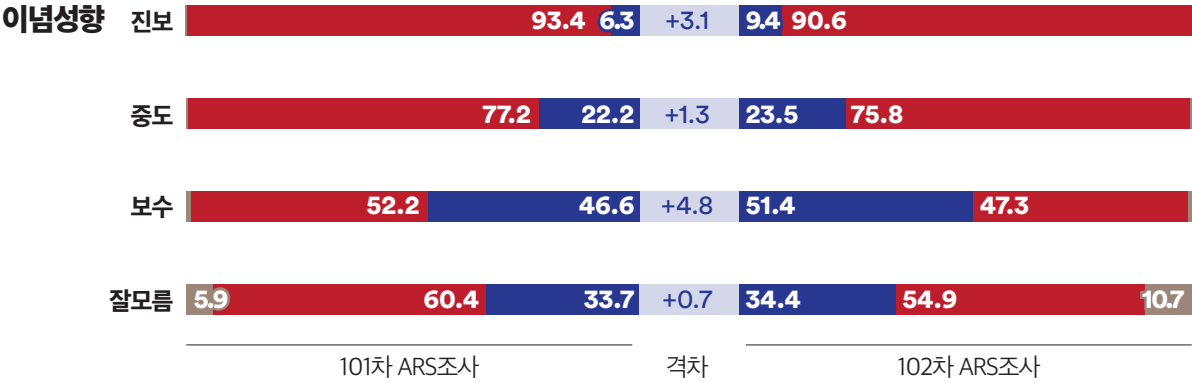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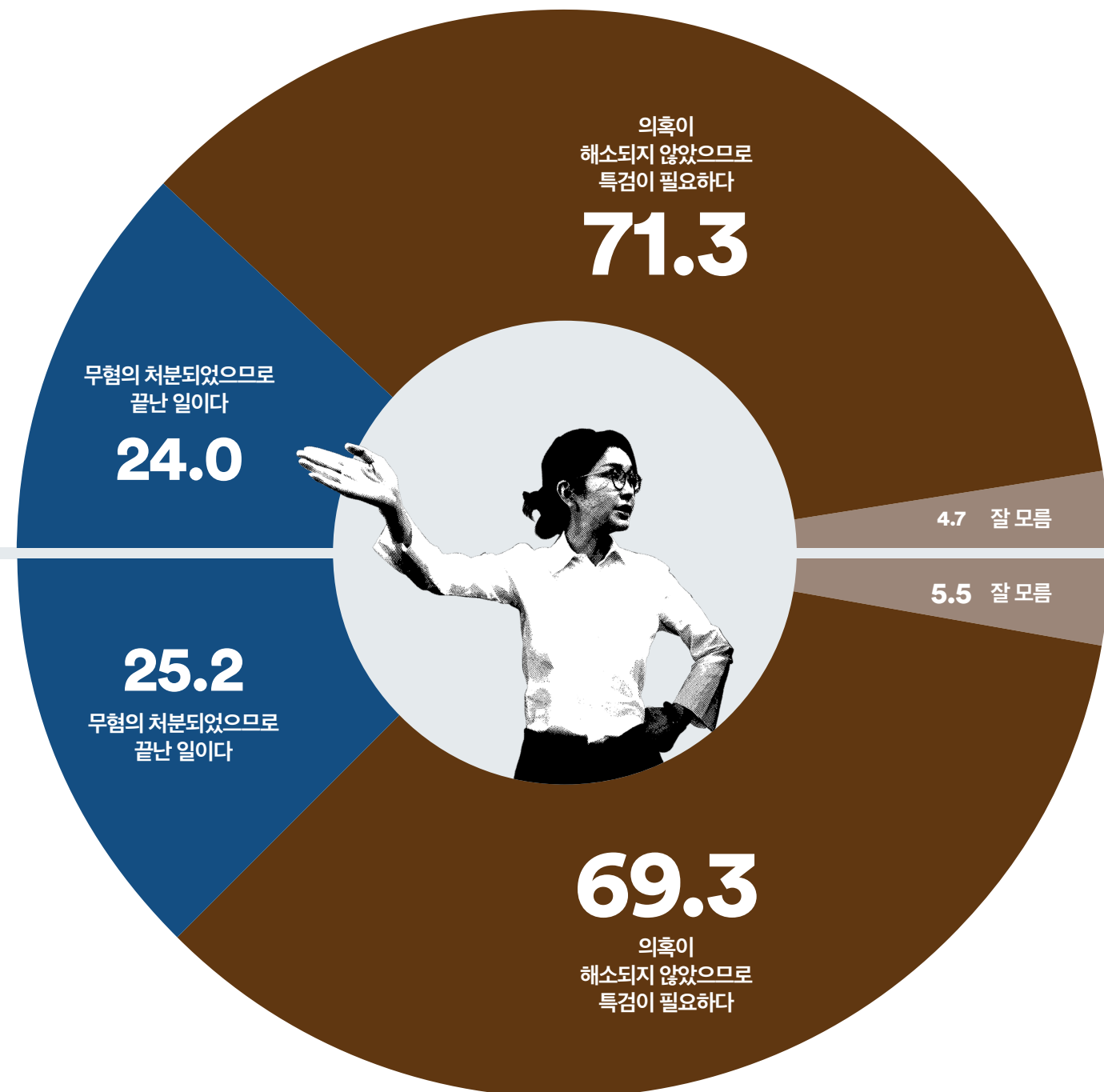
Q.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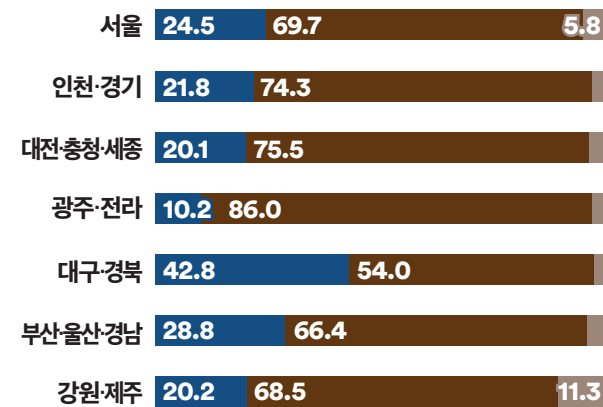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의 무혐의 처분 설명 중]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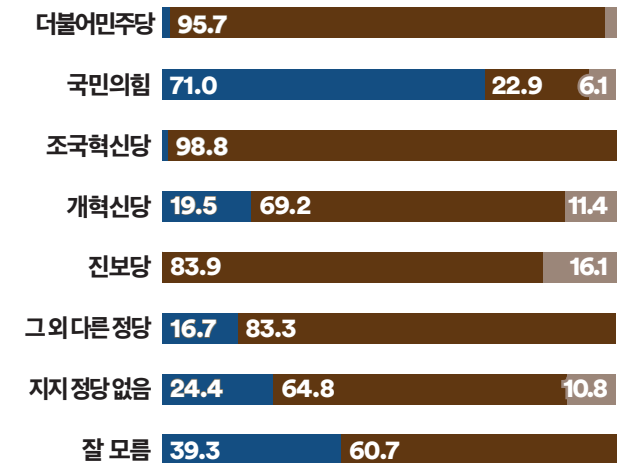


10명 중 7명은 김건희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47.3%p, ARS 44.1%p)  
모든 권역 및 60대 이하 연령층(CATI 70세 이상 포함),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0명 중 7명이 ‘끝난 일’이라고 응답, 무당층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 우세  
보수층의 경우, CATI조사에서는 양 응답이 팽팽했고 ARS조사에서는 ‘끝난 일’이라는 응답이 소폭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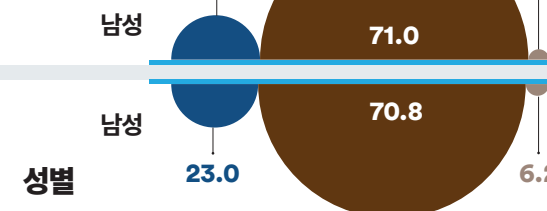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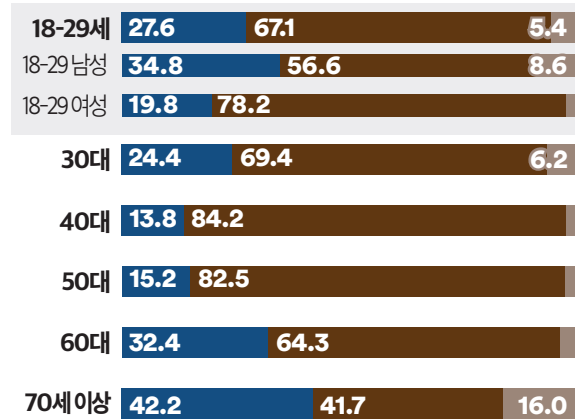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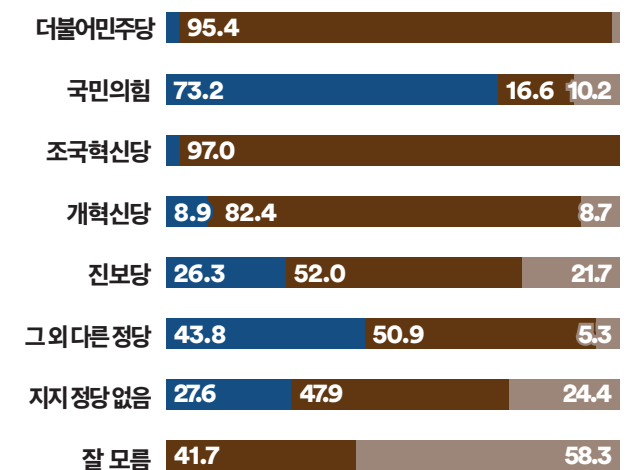
성별



연령대



정당지지도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끝난 일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특검이 필요하다

잘 모름



Q. 대통령실은 소위 김건희 라인 존재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는 윤석열 라인만 있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이 김건희 라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용산은 지금 거기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  
개네들이 김건희 여사와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  
“위에 수석 강아무개씨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 지금 그 40대 옛날 친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 있어. 개들이 다 파리 터가지고 스크립 짜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개네들이 지금 하나의 새로운 우리 옛날에 박근혜 때도 4인방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개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해”

[10월 8일 뉴스버스에서 공개한 김대남 전 비서관 녹취 발췌]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월 12일 부산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현장에서 한동훈 대표 발언]

“(김건희) 여사 라인이 어딴냐”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하는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에  
언론이 휘둘리면 안 된다”

[10월 14일 김건희씨 비선라인 의혹제기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입장]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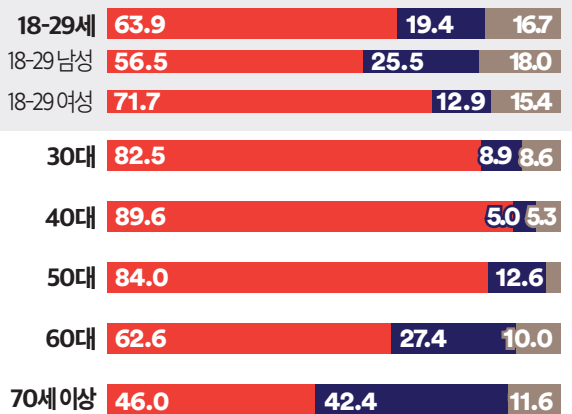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김건희 라인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53.5%p, ARS 49.9%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CATI조사의 7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존재할 것’이라는 응답 우세(CATI 70세 이상에서는 ‘존재할 것’이란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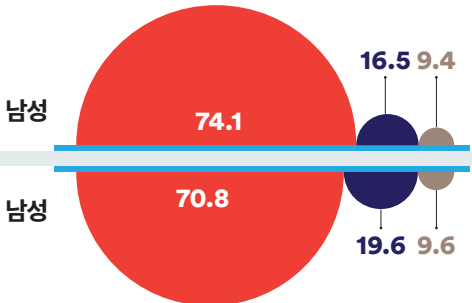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CATI 조사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하게 맞서고, ARS조사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우세

‘존재할 것’이라는 응답은 두 조사의 진보층과 중도층, CATI조사의 보수층에서 우세했고 ARS조사의 보수층에서는 오차범위 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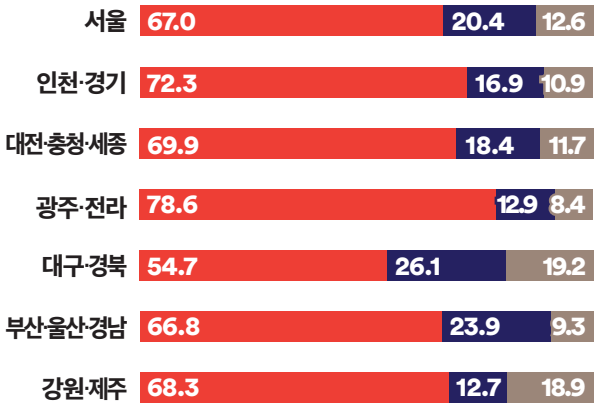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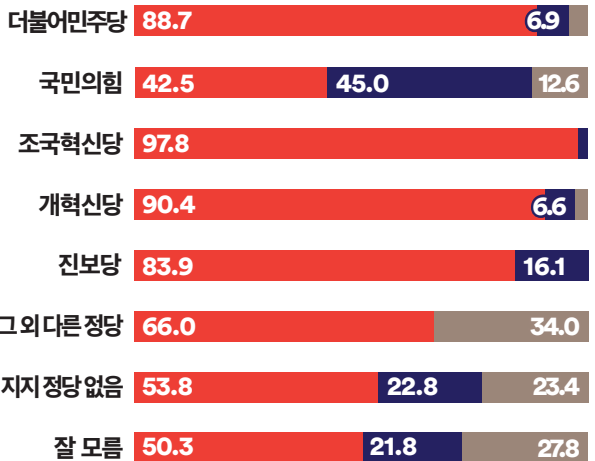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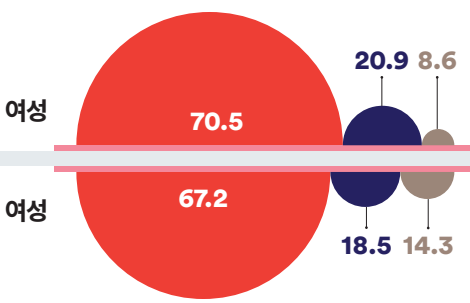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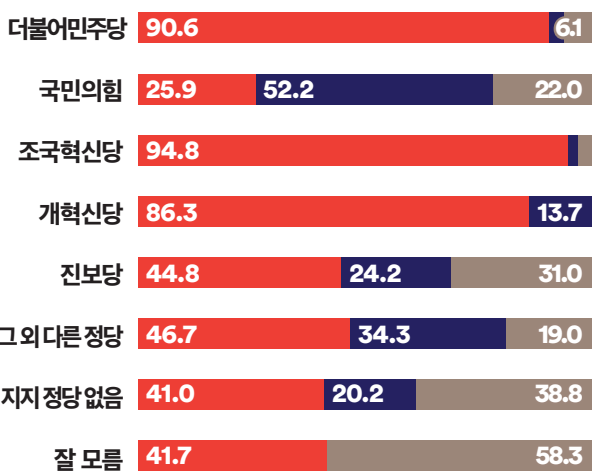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정당지지도



존재할 것이다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름

여론조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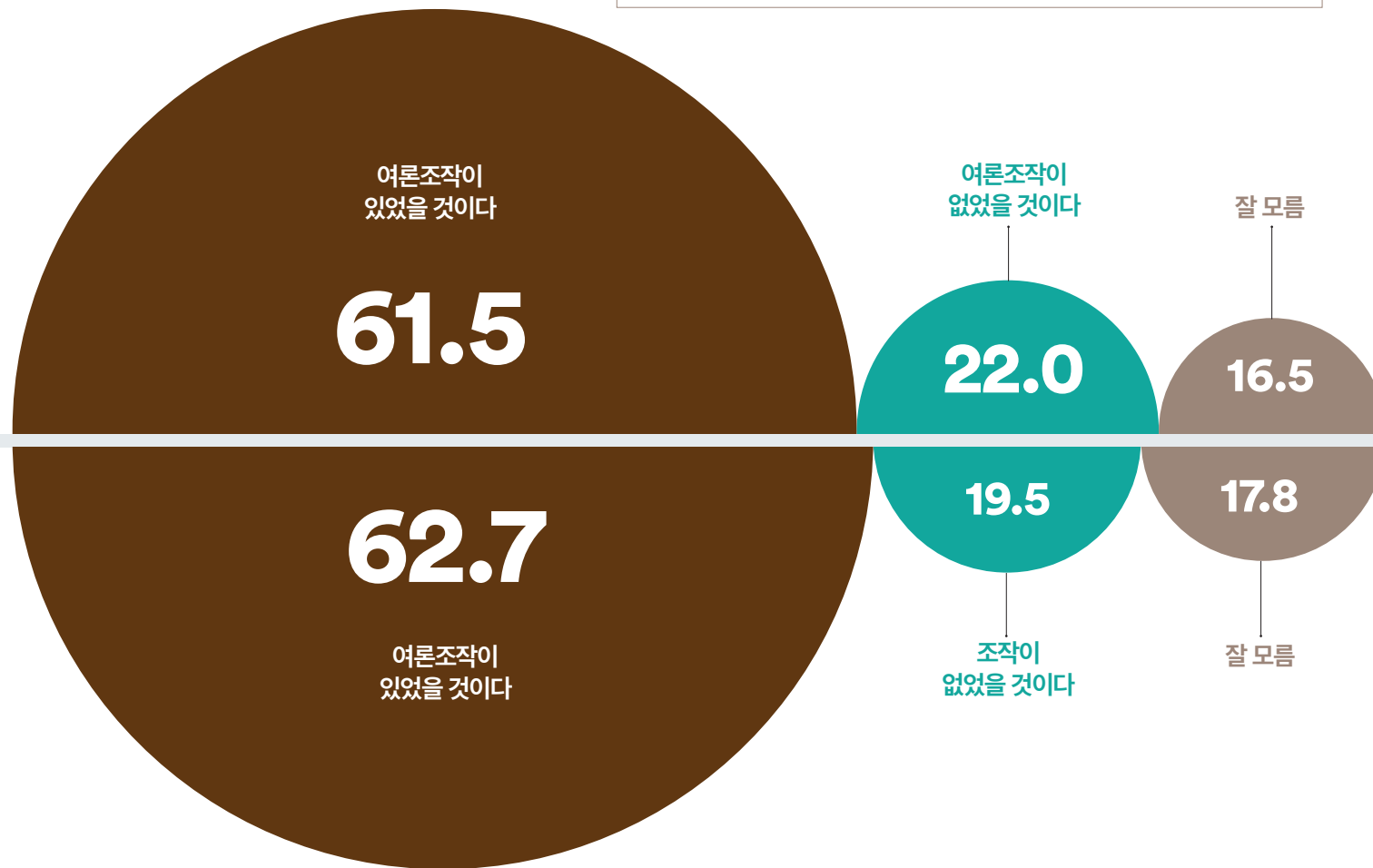
홍준표 시장의 여론조사 조작 주장

Q.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RS

“지난 대선후보 경선때 명씨가 운영하는 PNR에서 윤후보측에 붙어 여론조작 하는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경선 여론조사는 공정한 여론조사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명씨가 조작해 본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이 미칠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국민일반 여론조사에 10.27%이기고도 당원투표에 진 것은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영향이 더 컸다고 보고 나는 결과에 승복한 겁니다.  
더이상 선거부조커 명씨가 날뛰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조속히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엄중히 사법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성한 페이스북 내용]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작을 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에 대해 응답자 5명 중 3명 이상은 ‘여론조작이 있었을 것’이라 응답(응답간 격차 CATI 39.5%p, ARS 43.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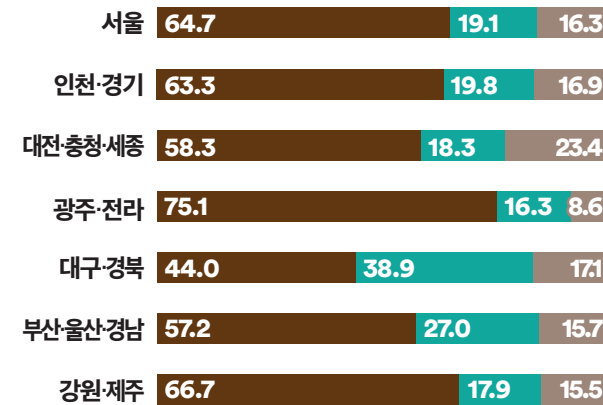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없었을 것’이란 응답 우세(CATI 57.5%, ARS 55.8%)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대에서 ‘있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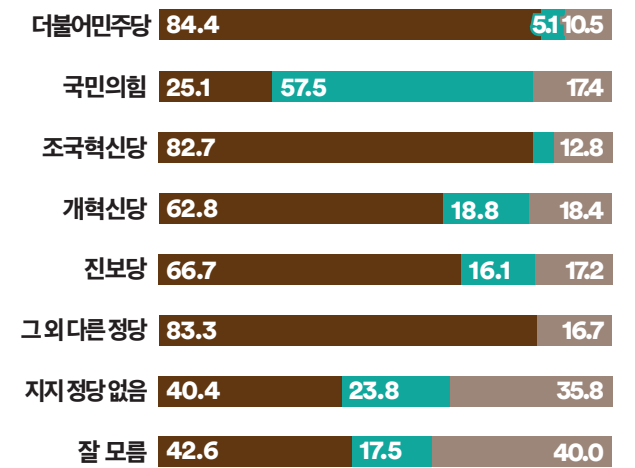
두 조사의 진보층과 중도층은 ‘있었을 것’이란 응답이 우세

보수층의 경우 CATI 조사에서는 ‘있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ARS조사에서는 양 응답이 팽팽하게 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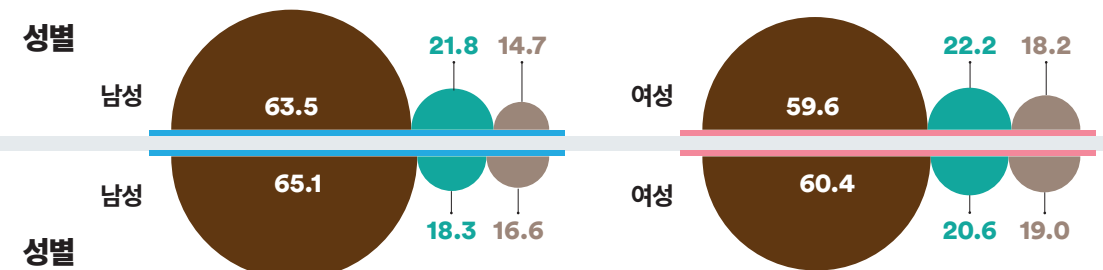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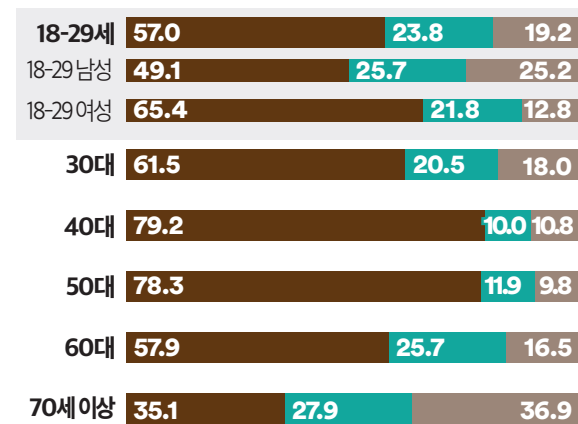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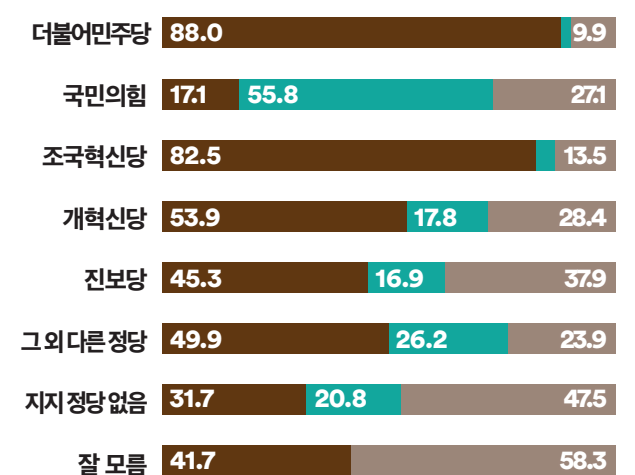
성별



연령대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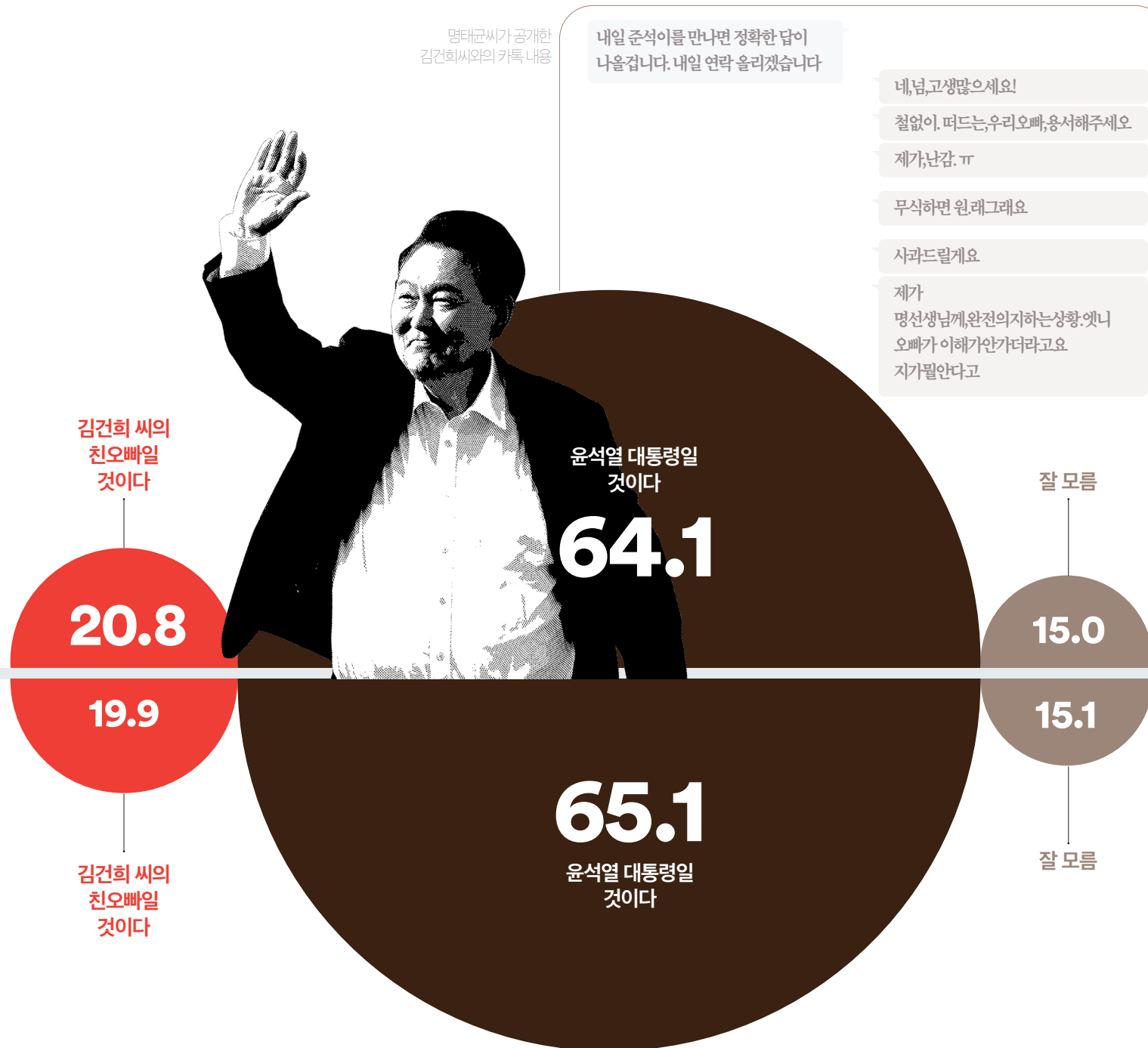


■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 조작이 없었을 것이다 ■ 잘 모름

Q.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메시지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메시지에 등장하는 ‘오빠’가 누구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CATI

ARS



응답자 5명 중 3명 이상은 김건희씨가 말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라고 생각(응답 간 격차: CATI 43.3%p, ARS 45.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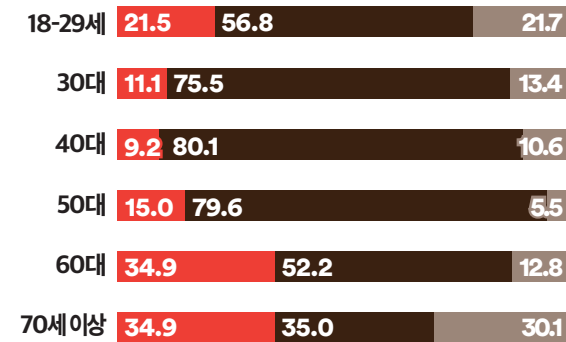
두 조사의 모든 권역,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

무당층과 진보층,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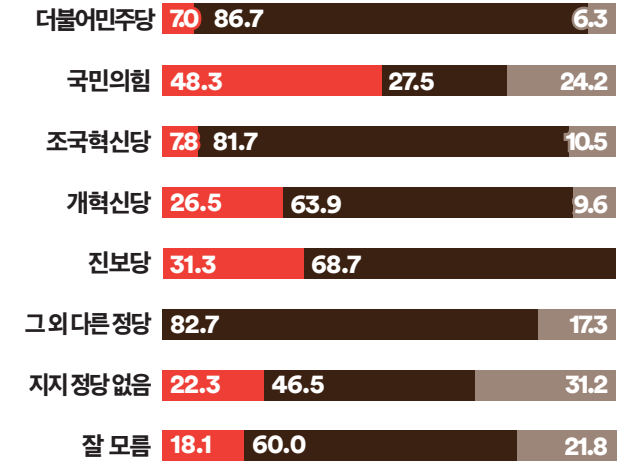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건희씨의 친오빠일 것’이란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나타남

CATI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났고, ARS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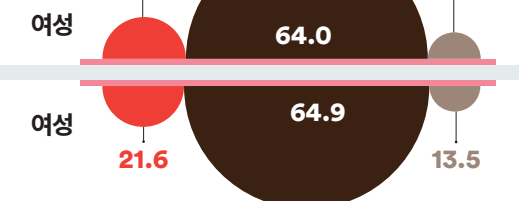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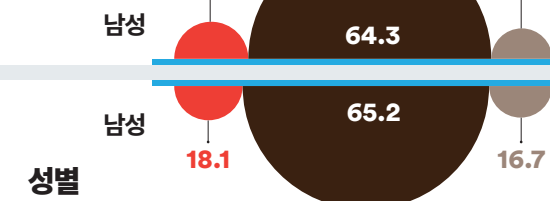
##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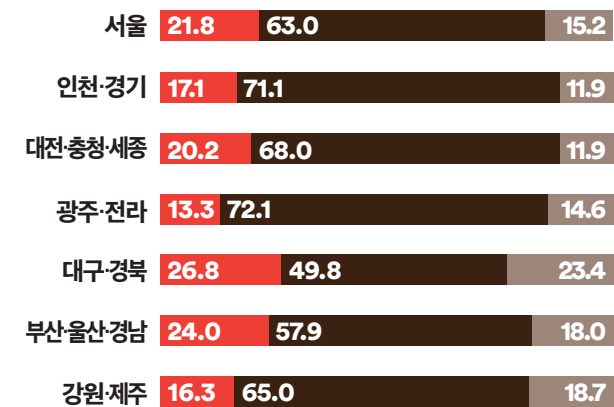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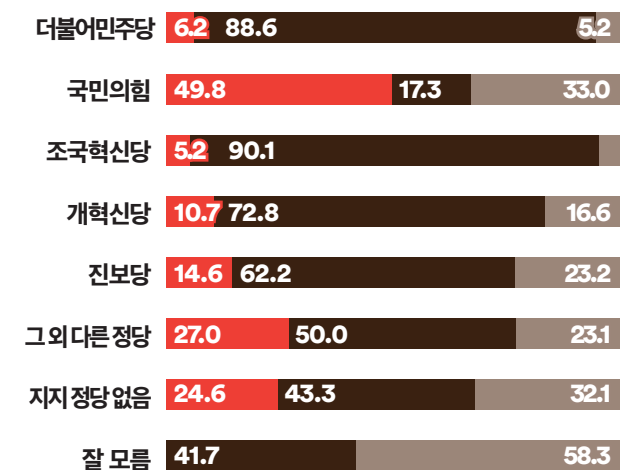
## 성별



## 권역



##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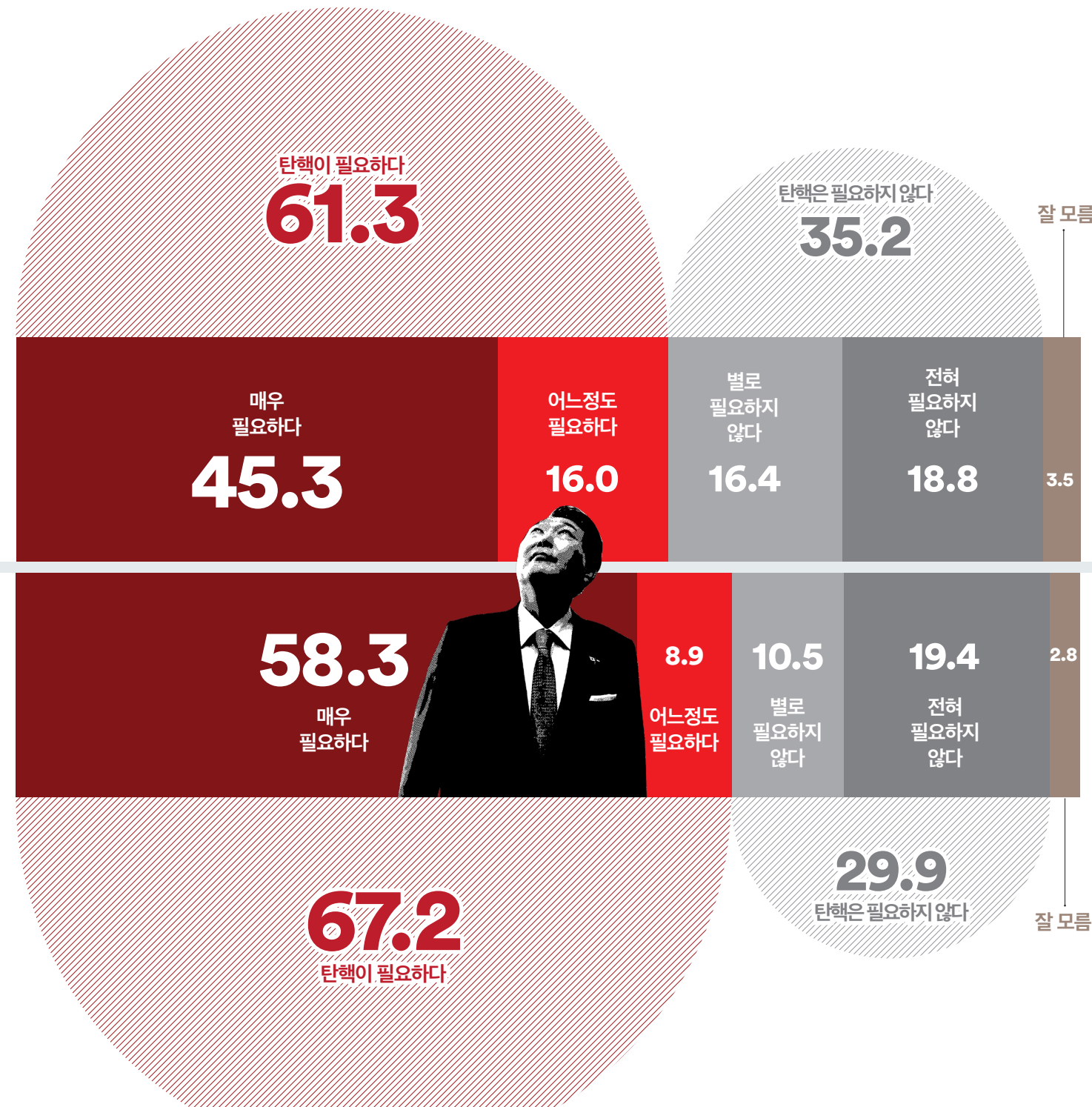


김건희씨의 친오빠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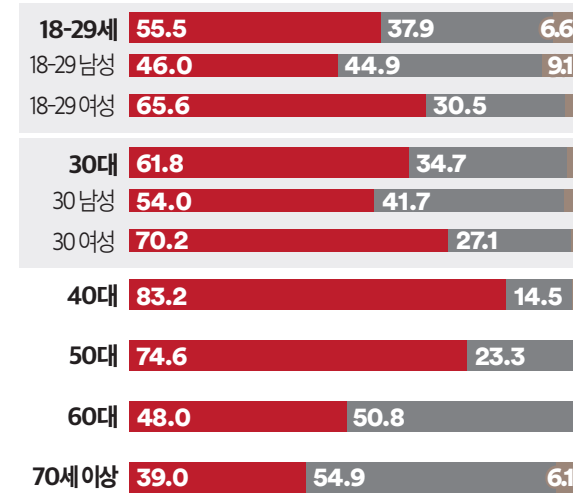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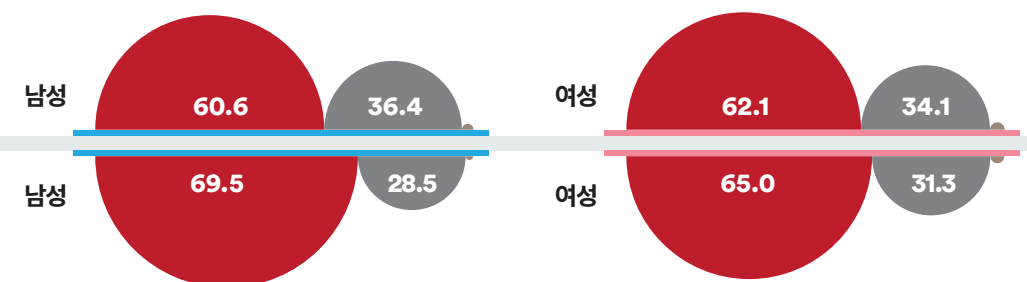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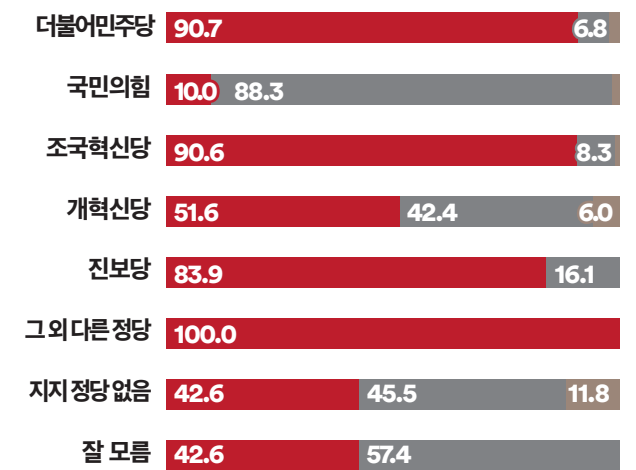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5명 중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26.1%p, ARS 37.3%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명 중 8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CATI 88.3%, ARS 86.4%)  
두 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50대 이하 응답층(ARS 60대 포함)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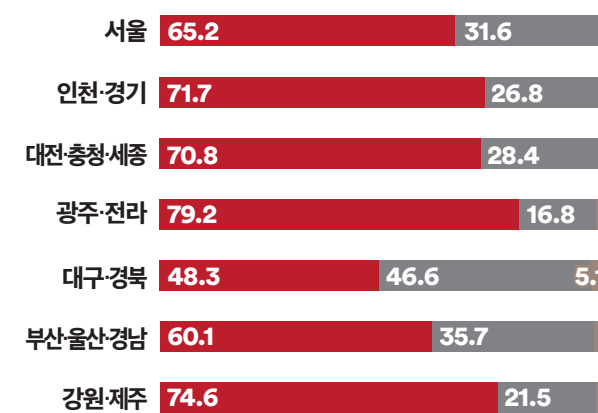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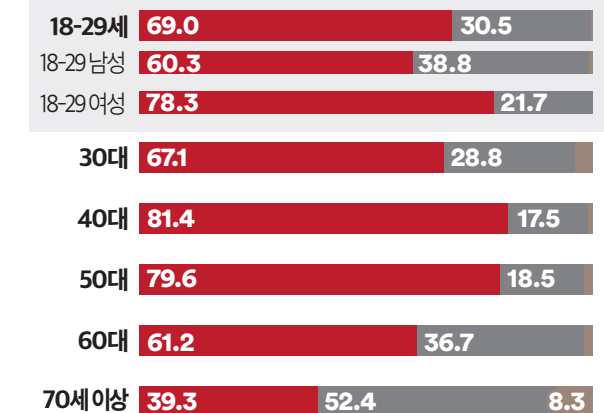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권역



연령



탄핵이 필요하다 (Red),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 (Grey), 잘 모름 (Brown)

WWW.  
FLOWERRESEARCH.  
COM

---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WR\_202410\_07

---